

사도행전 4장 32-37절 말씀

- 32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
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
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
-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
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
- 34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
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
-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
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
- 3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
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(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) 하니
- 37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